

	일본 (도쿄)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성용찬 소장
		일시	2024. 2.

CEPA Insight

- ① TSMC,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1공장 개소
- ② 비정규직을 택하는 젊은 세대 확대, 새로운 처우 등 설계 필요

① TSMC,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1공장 개소

- '24년 말부터 자동차, 산업기기에 탑재될 로직 반도체(12~28 나노미터) 양산
 - 24일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(위탁생산)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제1공장이 개소. 개소식에 참석한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(張忠謀)은 "일본 반도체 제조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"고 언급
 - '23년 12월 완공된 해당 공장은 '24년 말부터 자동차, 산업기기 등에 탑재될 12~28나노미터의 로직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
- 일본과 대만의 협력 심화.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
 - '23년 기준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(28나노미터 이상) 세계 생산능력의 29%를 차지하며, 1위 대만(49%)에 이은 2위를 차지
 - 일본, 미국, 유럽 등은 중국의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존재감이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상정. 대만 산업과학기술국제전략발전소의 양수린 연구총감은 TSMC 구마모토 공장은 "(일본, 미국, 유럽 등) 고객이 요구하는 공급망 강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"이라고 평가
 - TSMC는 '27년 가동을 목표로 24년 말 경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도 시작할 계획. 자율주행, 인공지능(AI) 관련 기기에 쓰일 6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며, 월 생산능력은 1공장과 합쳐 10만장 이상으로 전망
- TSMC의 류더인(劉德音) 회장이 26일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(岸田文雄) 총리와 회담
 - 류회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규슈에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총리에게 강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
 - 또한, 기자들과 만나 "일본의 지원으로 제1공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됐다"며 "총리의 반도체 투자 전략에 감사드린다"고 말함.

- TSMC는 24일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건설한 일본 내 첫 공장 준공식에 이어서, 구마모토현에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올해 말에 시작 예정

(출처 : 코트라. 2024. 2. 24. / 산케이신문, 2024. 2. 26.)

② 비정규직을 택하는 젊은 세대 확대, 새로운 처우 등 설계 필요

-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 - 25~34세 중 자신이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 비정규직이 된 사람의 수는 2023년에 73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4만 명 증가했으며, '정규직 일자리 부족'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음. 이에, 정규직 중심의 업무 스타일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와 처우를 설계할 필요
- 총무성(MIC)은 노동력 조사에서 비정규직 직원 수와 그 이유를 집계
 - 2023년 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5~34세 인구는 237만 명으로 2013년보다 64만 명 감소했으며, 이 중 30만 명은 정규직이 없다고 답해 54만 명 줄었음.
 - 반면, "자신이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다"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증가했으며, 23년도에 31.9%로 13년 전과 비교할 때 10.6포인트 상승
 - 야마구치 신타로(山口新太郎)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는 "개인 생활을 풍요롭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, 일의 가치도 변화하고 있다"라고 말함.
 -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, 실업률은 14년 이후 4% 이하로 떨어졌으며, 구직자에 대한 구인 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 배율도 1배를 초과
 -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움직임도 있음. 후생노동성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FY13부터 FY22까지 780,000명 이상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데 뒷받침되었다고 생각됨.
 - 2023년 비정규직 취업자 수는 2,124만 명으로 2013년보다 218만 명 증가했으며, 주요한 이유로 일을 계속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.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은 65세 이상 인구는 89만 명 증가한 145만 명을 기록
- 쟁점은 개호·육아를 위해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처우, 정규직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편
 -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20%에 비해 50% 이상에 달함. 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출산 가능성이 높은 30대부터 급격히 감소해 그래프가 'L자형 곡선'이 되며, 결혼이나 출산 후 가사와 육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은퇴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
 - 비정규직 고용은 불안정하고,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시급은 정규직의 70%에 불과하며, 소득이 적으면 연금 보험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적어 연금생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

수 있음.

-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'연소득장벽'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제한
- 많은 사람들이 육아나 간호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함.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, 후생노동성의 담당자는 육아와 개호를 양립할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

※ 한편, 닷케이 평균주가는 4일 도쿄 증시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처음(거래시간 기준), 4만엔대에 도달하였으며, 이는 지난주 말(2024. 2월 마지막 주)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하이테크 관련주가 랠리를 펼친 데 힘입어 도쿄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으며, 기업실적 확대와 자본효율 제고를 기대한 국내외 투자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

(출처 : 니혼게자이, 2024. 3. 4.)

< 참고자료 > 비정규직 이유(조사연령 : 25~34세 / 조사기관 : 총무성, '노동력 조사')

